

# LG의 특별한 ‘손님’... 그해 가을은 따뜻했네

골절·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 불구하고  
관중석서 동료 응원하며 ‘장외경기’  
구단선 영상 메시지 통해 캐류 기원  
팬들 열띤 박수 가세... 그들은 원팀

갑작스러운 부상에 다친 몸도, 그라운드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도 모두 성치 않다. 하지만 퇴원 직후 집보다 먼저 찾은 곳은 야구장이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함께 했으며, 그 뒤에는 관중석으로 자리를 옮겨 마음을 전했다. 2021년 가을, LG 트윈스는 ‘진짜 원팀’임을 증명했다.

LG-두산 베어스의 준플레이오프(준PO·3전2승제) 1차전을 앞둔 4일 잠실구장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LG 오지환(31), 송은범(37), 이상호(32)가 그 주인공들이다.

사실 이들의 정규시즌 활약을 고려하

면 포스트시즌(PS) 엔트리 합류는 당연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부상으로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 오지환은 10월 29일 시작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좌측 쇄골 골절, 이상호는 10월 12일 인천 SSG 랜더스전에서 갈비뼈 골절, 송은범은 8월 14일 잠실 롯데전에서 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다.

모두 가벼운 수준이 아닌 부상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동료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잠실구장을 찾았다. 모두의 마음이 결연했지만, 특히나 오지환은 2일 수술을 받고 3일 회복한 뒤 4일 퇴원과 동시에 야구장으로 향했다. 수술 2일차, 동기 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한 몸을 이끈 이유는 역시 동료들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다.

본인이 가장 답답할 텐데도 오히려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전해왔다. 오지환은 수술을 앞두고 선수단 단체 채팅방에 “그



LG 오지환(왼쪽)과 이상호가 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준PO 1차전 시작에 앞서 관중석에서 국민인사를 하고 있다.  
잠실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동안 고생 많았다.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무릎 수술이 있었던 고우석은 “본인이 아플 텐데 티를 안 낸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진짜 멋있는 사람, 멋진 선배”라고 감탄했다.

이들은 팀 훈련을 전후로 라커룸에 머물며 동료들을 격려한 뒤 관중석으로 이동해 선전을 응원했다. 구단에서도 경기

개시 직전 전광판에 이들의 영상을 띄우며 패우와 격려를 보냈다. 합성을 지를 수 없는 팬들도 열띤 박수를 보냈다. 어떤 시구행사보다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류지현 감독은 사령탑 이전에 선배이자 동료로서 팀에 헌신해온 선수들의 부상을 마음 아파했다. 올 여름 송은범의 부상 직후 모자에 그의 등번호 46번을 직접 적었다. 이상호의 부상 때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선수들끼리 동료의 번호를 적는 광경은 흔하지만, 감독까지 나선 사례는 드물다. 류 감독은 “송은범의 헌신을 동료나 코칭스태프가 모르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환이 부상으로 PS를 함께하지 못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팀 승리라는 목표 아래 개인의 욕심을 지운 원팀. 몸 상태는 중요치 않았다. 이 가을 LG는 진짜 하나로 거듭났다.

잠실 | 최혁명 기자 ing17@donga.com

## 5전3승제→3전2승제... 줄어든 PO 일정 1위 이강철 감독 “실전감각 유지 도움”

2위 삼성 PO최대 3경기 큰 손해 없어  
LG-두산도 체력소모 줄어 KS 해볼 만



KT 이강철 감독

올해 KBO리그 포스트시즌(PS)의 전체 일정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8월 2020도쿄올림픽 휴식기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부 경기가 순연되는 등 페넌트레이스를 끝까지 마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린 탓이다. KBO는 기존 5전3승제로 진행한 플레이오프(PO)를 3전2승제로 축소했다. 한국시리즈(KS)는 종전대로 7전4승제다. 이 때문에 KS로 직행한 KT 위즈가 누릴 어드밴티지가 줄어든 게 아니냐는 시각이 생기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정규시즌 우승 후 이들을 쉬고 KS 준비에 돌입한 KT는 유·불리가 크게 있진 않다는 입장이다. KT 이강철 감독은 1위 팀의 휴식기간이 줄어든 점은 불리할 수도 있지만, 선수들의 실전감각 유지 측면에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PO를 거쳐 KS에 올라올 팀이 과거보다는 경기를 덜 치른다는 대목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듯했다.

정규시즌 2위 삼성으로선 PO를 최대 3경기까지만 치른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삼성은 3명의 선발투수가 확실한 팀이다. PO를 2경기로 끝내면 원태인, 데이비드 뷰캐넌, 백정현 중 1명을 KS 1차전 선발로 활용할 수 있다. PO가 3차전까지 이어져도 큰 손해는 없을 전망이다.

준PO를 치르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도 끝까지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예년에 비해 소화해야 할 경기수가 줄었다는 점은 나쁘지 않다. 삼성만큼의 어드밴티지는 아니지만, 주축 선수들의 체력소모를 종전보다는 최소화할 수 있어 KS도 해볼 만하다. 올해 일시적으로 단축된 PS 일정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하다.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편지 | 최해경 기자 hk7049@donga.com



잠실 라이벌 두산과 LG가 4일 잠실구장에서 준PO 1차전을 펼쳤다. 코로나19 여파로 관중입장에 여러 제약이 따랐지만 양 팀 팬들이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팬들이 두산(왼쪽)과 LG의 깃발을 흔들며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잠실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잠실구장 정원의 83.4% 수준

## 준PO 1차전 1만9846명 입장...이것이 잠실 라이벌의 가을대전!

LG 트윈스-두산 베어스의 올해 준플레이오프(준PO·3전2승제) 1차전이 열린 4일 잠실구장에는 경기 전부터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홈팀 LG 프런트 직원들은 특별 제작한 ‘포스트시즌(PS)’ 영문 로고가 새겨진 후드 티셔츠를 맞춰 입었다. LG 관계자는 “선수들과 같은 옷을 입고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경기장 정문에는 선전을 기원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올해 가을야구 첫 경기를 앞둔 LG 팬들은 경기 개시 3시간 전인 오후 3시30분부터 1루 내야석 게이트 앞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와 체코인, 백신접종자 확인 등의 절차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미리 줄을 선 것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타트인 야구장의 풍경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관중도 총 1만9846명이 입장했다. 잠실구장의 정원 2만3800명의 83.4% 수준이다. 올해 정규시즌과 PS를 통틀어 최대 관중이 들어찬 두산-키움 히어로즈의 와일드카드(WC) 결정 1차전의 1만2422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였다. 잠실 라이벌전의 열

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팬들과 관계자들은 “확실히 LG-두산전은 다르긴 다르다”고 입을 모았고, WC 결정전을 통해 관중의 합성을 경험한 두산 이영하는 “확실히 집중이 잘 된다. 예전(무관중 체제)에는 억지로 집중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팬들께서 오시니 확실히 잘 되는 것 같다. 팬이 응원해주시면 그만큼 힘이 된다”고 말했다.

입장을 시작한 오후 4시30분부터는 유광점퍼를 착용한 LG 팬들이 1루측 관중석을 채웠다. 유광점퍼는 LG 팬들에게 가을

야구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두산 팬들이 자리 잡은 3루측 관중석과 외야석의 빈자리도 하나둘씩 지워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플레이오프’를 준비했고, 경기가 시작되자 쉬지 않고 응원전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궜다. 서서히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모양새였다. 이 모습을 지켜본 두산 관계자는 “백신접종 등 조건이 까다로워 관중유입에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팬들께서 정말 많이 와주셨다”며 고마움을 감추지 않았다.

잠실 | 강신 기자 posterboy@donga.com

## 부자들이 몰려오는 곳, 100대명당 용의머리 살곳이 마리나 별장동네



수도권에서 1시간대 거리, 아침해가 동쪽바다에서 뜨고, 저녁해가 서쪽바다 총청남도 당진으로 지는 곳, 서울특별시보다 2배가 더 커다란 공평항 앞바다의 거대하고 웅대한 초자연의 신비가 있는 커다란 호수 같은 바다. 평택항을 오가는 20만톤 대형 화물선이 왔다갔다 하는 곳.

제부도, 전곡항, 백미항, 공평항의 정 가운데에 커다란 용이 바다가운데로 뚝 뛰어나간 곳 (왼쪽 사진 참조) 용의 머리 살곳이 마리나 부자 별장주택단지 같은 정남향의 위치는 지금이 아니며, 앞으로는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550척의 제부전곡항 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7분 거리.



100대명당, 용의머리 살곳이 마리나 부자별장동네 분양  
수도권에서 1시간대 거리 분양 문의 010-9095-1899

##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아침이 가뿐 · 상쾌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는 것으로도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출시, 판매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종합물산에서인기리에 시판하고 있는 목초수액시트는 자기 전에 양쪽 발바닥에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내는 건강증진 보조제품으로 갈색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돼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목초(木草)는 목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로부터 채취하는데 나무를 쏘 굶는 가마에 넣어 구우면 수목내부의 액기가 증발하여 연기와 함께 나오게 된다. 이것을 급속 냉각 일정기간 지난 후 정제과정을 거친목초수액시트를 발바닥에 붙이는 이유는 발은 전신이 투영된 반사구나 경혈이 모인 장소로서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인간은 땅, 소변, 대변,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이 빠지고 있으나 그 불필요한 것 등,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발에 쌓인다는 것이 발 건강요법 전문가들의 말이다. 월간 ‘주부생활’ 2001년 10월호에서 발 관리전문가 김 모씨에 따르면 “건강한 몸과 발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며 “발은 자극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관리하면 건강증진에 좋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의 사용법도 매우 간편하다. 자기 전 양쪽 발바닥에 1장씩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 내면 되고, 발바닥외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등에는 24시간 붙였다가 떼어 내면 된다. 이 제품은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장시간 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몸이 무거운 사람,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가사 일이 많은 주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미용실서 일하는 사람,수험생, 연로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판매원의 한 관계자는 “이 제품은 절대 의약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며 공산품이지만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며 “관계법령에 의해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목초수액시트 구매시 김오곤 원장이 직접 배합한 귀한 침향향 특별증정

1개월분 구매시 침향향 10개들이 1박스 증정  
2개월분 구매시 침향향 10개들이 2박스 증정

문의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